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청년센터 설립과 청년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산업·경제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구가 10년 전보다 약 11% 증가

사회·복지

'노인돌봄'을 위한 타임뱅크(Time Bank) 제도 확대 시행
올해 市 전역에 200개의 '노동자쉼터' 추가 설치

도시교통

전기차의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도입 추진
교통 소외계층 등을 위한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시행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이수진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이정근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박효택		홍남명
샌디에이고	김민희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시카고	강기향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올랜도	박혜진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하와이	임지연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휴스턴	이경선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에드먼턴	장지훈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토론토	고한나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청년센터 설립과 청년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프랑스 파리지 / 사회·복지

파리시는 경제회복 플랜의 하나로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매달 500유로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제안. 이에 중앙정부는 18~25세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5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또한 구직 및 구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청년층 취업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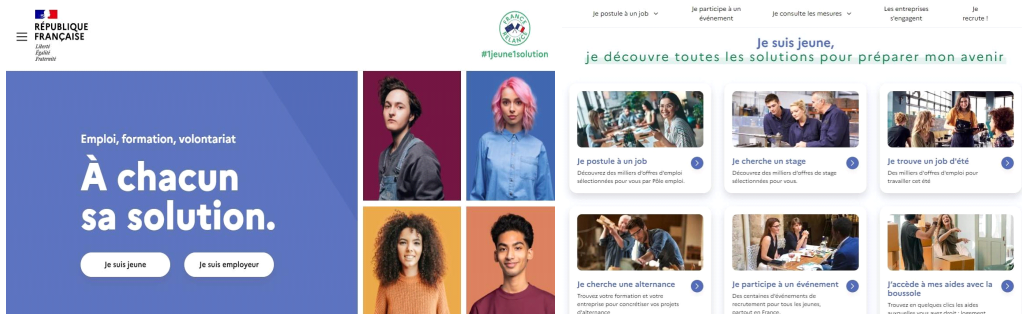
배경

- 파리에 거주하는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
 - 대학생들의 약 74%가 입학할 때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약 17%는 학업을 중단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5세 이하의 구직자 수가 32% 증가
 - 소규모 일자리들이 없어지면서 대학생들도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짐
 - 이로 인해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외로움 등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

청년센터 설립과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층을 위한 센터(Maison pour la jeunesse) 설립 계획을 발표
 - 15~30세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 지원정책, 멘토링, 인턴십, 취업 정보와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센터를 설립할 계획
 - 구직 및 구인 정보 제공 외에 직업교육, 건강, 법률 자문, 여가, 문화, 스포츠, 웰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에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올해 9월 개소를 목표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매달 500유로의 청년 긴급생활비 지원 제안 및 지급 추진
 -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전(前) 대통령은 올해 2월 16~26세의 청년들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0유로의 긴급 지원금 지급을 제안
 - 향후 3년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제안
 -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실직했거나, 학업 중인 아닌 18~25세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5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5월에 발표

- 올랑드 전 대통령의 ‘la Garantie Jeunes’¹⁾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중앙 정부의 ‘조건부’ 청년수당 지급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²⁾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 이달고 파리시장은 최근 ‘RSA Jeune’라는 이름으로 장기 비소득자 지원수당의 지원 대상 연령을 16세까지 낮춰 지급할 것을 제안³⁾
- 청년들이 일자리와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 지난해 말부터 프랑스 정부는 취업, 교육,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얻고 청년 구직자들이 직접 구인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1jeune1solution.gouv.fr)를 운영 중
 - 청년들은 각 사업체의 구인 공고 외에도 인턴, 계절 아르바이트, 입사 체험, 행사 참여, 멘토링, 창업, 사회교육, 공공사업, 청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에 지원 가능
 - 사업주는 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용직(雇用職), 인턴직, 행사요원 모집, 멘토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이 사이트를 통해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5,000유로, 18세 이상은 8,000 유로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그림] ‘한 청년을 위한 한 가지 솔루션’, 1 Jeune 1 Solution 인터넷 사이트

(출처: www.1jeune1solution.gouv.fr)

1) ‘구직활동의 동반자(accompagnement pour trouver un travail)’라는 의미로, 16세에서 25세까지 학업 중이 아니거나 직업이 없고 부모 지원이 없는 청년들에게 최대 497,50유로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출처: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2700>)

2)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현재는 25세 이상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

3) 이달고 시장은 선거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정책 평가

- ‘1 Jeune 1 Solution’을 통해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청년 긴급생활비 지원정책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비교할 만한 정책으로 그 실효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https://www.francetvinfo.fr/societe/education/video-precarite-des-jeunes-il-nous-faut-trouver-d-urgence-une-aide-financiere-a-declare-anne-hidalgo_4284905.html

<https://www.lci.fr/societe/l-executif-prepare-une-nouvelle-aide-de-500-euros-pour-les-jeunes-sans-emploi-ni-formation-2185344.html>

<https://www.paris.fr/pages/appel-a-projet-et-appel-a-manifestation-d-interet-pour-la-maison-de-la-jeunesse-17733>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2700>

<https://www.rtl.fr/actu/politique/coronavirus-une-nouvelle-aide-pour-les-jeunes-avant-l-ete-7900028563>

<https://www.ouest-france.fr/sante/virus/coronavirus/covid-19-hollande-et-hidalgo-appellent-a-une-aide-de-survie-de-500-eu-pour-les-jeunes-7143171>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caf/661/Documents/Covid-19/Fiche%20jeunesse%20Caf%20des%20PO.pdf>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구가 10년 전보다 약 11% 증가

중국 충칭시 / 산업·경제

충칭(重慶)시 통계국은 2020년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全國人口普查) 결과를 지난 5월 13일 발표. 충칭시는 지난 10년 동안 상주인구가 320만 명(11.1%)이나 증가. 2010년 충칭시는 연해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주민들이 대거 발생해 2000년보다 상주인구가 감소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덕분에 다른 省·市の 주민까지 유입되어 인구가 많이 증가

2020년 중국 전역에서 진행된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결과 발표

- 전국 인구센서스는 중국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적인 조사방법에 따라 수십만 명의 조사원이 동원되어 동시에 이뤄져 최고의 권위를 자랑
 - 1953년에 제1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제2차는 1964년, 제3차는 1982년, 제4차는 1990년에 이루어진 뒤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전국 인구센서스를 실시해 이듬해에 결과를 발표
 - 1970년대에는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인구센서스를 진행하지 못했음
-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결과, 중국 전체 인구는 2010년 제6차 때보다 5.4% 증가한 14억 1,178만 명이었음
 - 중국 내 31개 省·市·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둥(廣東)성으로 1억 2,601만 명이었고, 2위는 산둥(山東)성으로 1억 152만 명, 3위는 허난(河南)성으로 9,936만 명이었음
 - 충칭시와 같은 쓰촨(四川)문화권이자 청위(成渝)경제권¹⁾인 쓰촨省은 8,367만 명으로 5위를 차지
 - 쓰촨省은 2010년 제6차 인구센서스 때보다는 순위가 1단계 떨어졌음

2020년 충칭시의 상주인구는 10년 전보다 11.1% 증가한 3,205만 명

- 충칭시 통계국은 5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상주인구가 2010년 2,884만 명보다 320만 명(11.1%) 증가한 3,205만 명이라고 발표

1) ‘청위경제권’은 충칭시와 쓰촨省 전체를 포괄하는 중국 내륙에서 유일한 메가 경제권으로, ‘청(成)’은 청두(成都)市, ‘위(渝)’는 충칭시의 약칭

- 충칭시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에 직할시로 승격되어 쓰촨省에서 갖 분리됐을 당시 상주인구는 2,873만 명이었고, 2000년 상주인구는 3,090만 명이 었다가, 2010년에는 2,884만 명으로 감소했음
 - 당시 중국 내 직할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이었고, 충칭이 네 번째로 직할시로 승격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10년 상주인구가 2000년보다 206만 명이나 줄어든 이유는 직할시 승격 이후 경제성장이 더더짐에 따라 많은 주민이 연해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기 때문임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충칭시는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쓰촨省, 허난省, 안후이(安徽)省 등과 함께 인구 유출이 많았던 곳이었음

상주인구가 늘어난 배경은 지난 10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

- 2010년부터 기초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성공적인 국유기업 경영, 주요 공장의 교외 이전과 조업환경 개선 등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시작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충칭의 경제성장률은 8~13%를 기록해 중국 내 31개 省·市·자치구 중 1, 2위를 다룰 정도였음
 - 2011년 1조 11억 위안에 불과했던 GDP는 2018년 2억 363억 위안으로 7년 만에 무려 2배가 늘어났고, 2020년에는 2조 5,002억 위안을 달성



[그림] 2011~2018년 충칭시 GDP 추이 (출처: 중국화상연구원)

- 과거 중국의 핵심 군수공업기지로 중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충칭은 현재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철강, 컴퓨터, IT, 환경 등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제조업 경쟁력을 고루 갖춘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음

- 한국은 충칭에 반도체, 자동차와 IT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거 공급하는, 충칭의 3대 수입 파트너 국가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

- 충칭의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비례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8~13%의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2010~2017년 매년 상주인구가 1% 이상씩 증가했음
 - 주목할 점은 2020년 상주인구 3,205만 명 중 충칭市에 호적(戶口)을 둔 주민은 2,947만 명이고, 258만 명은 외부에서 유입된 다른 省·市의 주민임
 - 이는 연해 지방의 省·市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주민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뿐 아니라, 다른 省·市의 주민들이 새로 늘어난 일자리를 찾아서 충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그림] 2011~2018년 충칭市 인구 증가 추이 (출처: 중국화상연구원)

- 감소했던 인구가 다시 늘어난 충칭市의 사례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 인구 증가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입증
 - 2018년 이후 충칭市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평균치인 6%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향후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http://tjj.cq.gov.cn/zwgk_233/fdzdgknr/tjxx/sjld_55469/202105/t20210513_9277447.html

http://www.stats.gov.cn/tjsj/tjgb/rkpcgb/dfrkpcgb/201202/t20120228_30410.html

http://www.stats.gov.cn/tjsj/tjgb/rkpcgb/dfrkpcgb/200203/t20020331_30340.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36647637776264681>

‘노인돌봄’을 위한 타임뱅크(Time Bank) 제도 확대 시행

중국 칭다오시 / 사회·복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칭다오시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적립하고 향후 자신이나 가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시간만큼 찾아서 쓸 수 있는 ‘타임뱅크(Time Bank)’ 제도를 시범 운영했음. 시는 올해 시 전역으로 이를 확대 시행해 노인복지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

배경 및 목적

- 중국 사회의 고령화 심화로 노인돌봄 수요 급증
 - 2019년 말 기준 중국 60세 이상 인구는 2억 5,400만 명(전체 인구의 18.1%), 65세 이상 인구는 1억 7,600만 명(전체 인구의 12.6%)으로 집계
 -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중국 노인인구는 3억 명을 돌파하여 중국이 고령사회(aged society)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산둥성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23.09%, 65세 이상 인구가 15.77%로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
- 칭다오시는 도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타임뱅크(Time Bank)’ 모델을 추진 중
 - 타임뱅크(Time Bank, 時間銀行)란 노인들을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적립하고 향후 자신이나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시간만큼 찾아서 쓸 수 있는 상호 봉사 시스템
 - 2020년 4월 14일 ‘칭다오시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실시방안(시범)’ 발표, ‘칭다오시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실시 세칙’ 제정
 - 2020년 칭다오 내 시난(西南)구, 청양(城陽)구, 시하이안(西海岸)신구 등 3개 구에서 시범 운영
 - 2021년 3월 31일 칭다오시 민정국은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확대 보급에 관한 통지’를 통해 지난 1년간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토대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발표

1)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분류

- 2021년 4월 말까지 각 구의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관련 인력 구성 및 교육 실시, 5월부터 市 전역을 대상으로 타임뱅크 제도 본격 실시

주요 내용

- 타임뱅크 제도 신청 조건 및 서비스 항목
 - 타임뱅크 서비스 이용 대상
 - 만 80세 이상 도시의 독거노인(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떨어져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홀로 거주) 및 농촌 거주 노인(자녀가 농촌 호적지를 떠난 지 6개월 이상, 농촌에 홀로 남아 생활하면서 주변에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부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타임뱅크에 시간이 적립된 만 60세 이상 노인
 - 주요 서비스 내용
 - 식사(도시락 배달, 식재료 대리 구매 등), 의료(병원 동행, 약 처방, 약품 구매 등), 목욕(목욕 도움, 목욕 봉사 기관 동행 등), 청결(이발, 집안청소, 세탁 등), 응급조치(각종 응급상황 시 도움 제공), 정신건강(심리적 위로, 말동무 등)
- 서비스 이용방법
 - 서비스 제공 봉사자는 봉사 완료 후 계좌에 타임코인 적립, 칭다오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앱과 개별 사회보장카드에 기록
 - 칭다오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앱 회원 가입 후 인증 절차를 거쳐 봉사자로 등록
 - 봉사자는 만 60세 이후 적립 시간을 차감하여 필요 서비스를 이용. 가족에게 양도도 가능
 - 서비스 이용자 역시 타임뱅크 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신청
 -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양로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대행업무 수행
 -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센터의 담당 인력이 플랫폼상에서 서비스를 대리 신청
 - 이용자 앱과 연결된 가족이나 친척이 서비스 대리 신청도 가능
 - 서비스 접수 후 앱 플랫폼상에서 서비스 신청자의 거주지와 봉사자 등록지의 거리, 수행 가능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근거리의 적정 봉사자를 우선 지정
- 서비스 이용 현황
 - 2021년 4월 기준으로 3개 시범구역 ‘타임뱅크’ 자원봉사 등록자 4,804명, 서비스 이용 대상 3,866명, 봉사 성사 건수 1,539건, 봉사 시간 784.25시간



[그림] 칭다오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앱 등록 화면



[사진] 시난(西南)구 양로서비스센터

향후 개선계획 및 기대효과

-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
 - 현재 중국에서는 칭다오 외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 대도시에서도 타임뱅크 제도를 운영 중
 - 중장기적으로 각 지역의 타임뱅크 간 연계, 상호 이용 가능한 시스템의 필요성 제기
 - 다양한 직군의 전문성을 가진 봉사자들의 동참을 유도해 서비스의 다양화 추구
 - 단순 봉사시간에 근거한 적립이 아니라 내용, 품질, 난이도 등 봉사 업무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밀한 기준 마련

- 노인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구역 내 양로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관리망 구축, 노인 대상 앱 사용법 교육 강화 또는 봉사 신청 대행업무의 체계화 필요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타임뱅크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복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696979764990749463&wfr=spider&for=pc>

<https://new.qq.com/rain/a/20210410A0BKQG00>

http://qingdao.sdnews.com.cn/xwzx/202012/t20201224_2842839.htm

<https://baijiahao.baidu.com/s?id=1696874433904541874&wfr=spider&for=pc>

강 경 이 통신원, jiongli1011@naver.com

올해 市 전역에 200개의 ‘노동자쉼터’ 추가 설치

중국 충칭市 / 사회·복지

충칭市는 2020년 현재 육체노동자,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노동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해 665개의 '노동자쉼터(勞動者港灣)'를 운영하고 있는데, 市는 올해 추가로 200개를 개소할 예정. 충칭市는 현재 중국 전체 省·市 중 가장 많은 노동자쉼터를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노동자쉼터’ 운영의 시작

- 노동자쉼터는 2018년 9월 건설은행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 분행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
 - 거리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등을 위해 각 지점에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락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 있고, 신문과 휴대폰을 보며 쉴 수 있도록 조치
 - 이를 2019년 충칭市가 도입하여 노동자쉼터를 운영

‘노동자쉼터’ 운영현황

- 충칭市 도시관리국이 충칭市 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사업을 진행
 - 노동자쉼터를 광장, 공원, 주민센터, 환경미화원 쉼터, 노동조합연맹 노동자서비스센터, 은행 지점, 대형 상점, 대형마트, 호텔 등에 마련
 - 은행 지점, 대형 상점, 대형마트, 호텔 등의 경우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곳을 선정
 - 쉼터에는 무더운 충칭의 기후를 고려하여 에어컨과 냉장고를 설치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와 정수기를 비치
 - 이용자가 쉬면서 볼 수 있도록 신문을 비치하고,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설치하여 휴대폰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체노동자,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노동자와 개인사업자가 무료 이용 가능
 - 노동자쉼터는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노동자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개인사업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사업장에 식당, 탕비실(湯沸室), 휴게실 등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지정된 휴식공간이 없는 노동자와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
- 버스, 택시, 트럭 등을 장시간 운전하는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무로 쌓인 피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



[사진]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이 갖춰진 '노동자쉼터' (출처: 상유신문)



[사진] 노동자쉼터에서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동자 (출처: 상유신문)

- 4월 23일 충칭市는 올해 200개의 노동자쉼터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65개의 노동자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인데, 올해 200개를 새로 개소할 예정

- 올해 문을 열 노동자쉼터는 구마다 10곳, 현마다 3곳씩 설치되는데, 공간은 이미 확보한 상황

향후 ‘노동자쉼터’ 운영계획

- 충칭시는 올해 안으로 노동자쉼터의 양적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올해까지는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함
 - 충칭시가 중국 전체 省·市 중 가장 많은 노동자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시정(市政) 만족도가 높은 편
 - 일부 노동자쉼터에 설치하지 못한 에어컨과 냉장고를 모두 설치하고, 이용자가 많은 노동자쉼터에는 화장실, 세면장, 구급약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

http://cq.cqnews.net/html/2021-04/23/content_51321105.html

<https://cq.sina.cn/news/2021-01-21/detail-ikftssan9026308.d.html>

http://www.ccb.com/cn/ccbtoday/jhbkhb/20180904_1536049900.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전기차의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도입 추진

독일 베를린시 / 도시교통

독일 베를린시는 2020년 5월 20일부터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위한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 이 시범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의 일부로 베를린, 스톡홀름(스웨덴), 말라가(스페인) 등 3개 도시와 여러 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 추진

배경: 마이스터(MEISTER) 프로젝트

- 현재 유럽은 전기차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
 - 높은 전기자동차 가격, 소비자들의 낮은 수용도, 충전 시스템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 따라서 더 많은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잠재 고객이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
- 마이스터(MEISTER)는 전기자동차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시범 운영 및 평가하는 프로젝트
 - 유럽연합(EU)의 Horizon 2020¹⁾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2018년부터 시작
 - 시범 프로젝트에 스페인 말라가, 독일 베를린, 스웨덴 스톡홀름이 각각 유럽 남부·중부·북부의 대표 도시로 참여
 - 이들 세 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심 이동 계획'에 e-모빌리티(E-Mobility)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
 - 베를린은 스마트 주차, 스마트 충전, 주거단지 내 전기차 공유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²⁾

주요 내용

- 베를린시 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전기자동차를 위한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마련
 -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에 4개의 스마트 충전 시스템을 제공
 - 각 주차구역에는 스마트 주차 규제봉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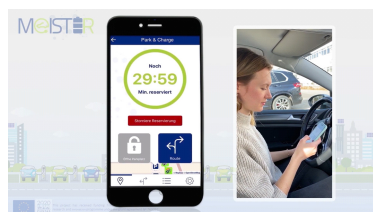
1) Horizon 2020은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에 걸쳐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연구소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목적임

2) 다른 두 도시도 스마트 주차 및 충전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함. 말라가는 대중교통과 긴급차량 등 시영 교통수단(Municipal Fleets)의 전기차 공유 서비스 등이 핵심 사업임. 스톡홀름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음

- 마이스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이용시간을 정해 놓으면 스마트 주차 규제봉이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내려감
- 마이스터 애플리케이션은 지멘스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VMZ 베를린 베트리브게젤 샤프트가 개발. 주차 규제봉은 독일 IT 서비스 기업인 그린 모빌리티 솔루션스가 제작. 베를린의 시영 주택 건설사인 게보박(Gewobag)이 주차공간을 제공
- 베를린의 템펠호프-쇠네베르크 지역구에 위치한 마리엔도르프(Mariendorf)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
 - 게보박(Gewobag)이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슈프레아우토(SpreeAuto)의 일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
- 이외에 스마트 전기차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단지를 계획 중
 - 베를린의 슈판다우(Spandau)에 바티칸트 베를린(Waterkant Berlin)이라는 새로운 주거단지를 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
 - 신축 아파트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공유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을 개발계획에 포함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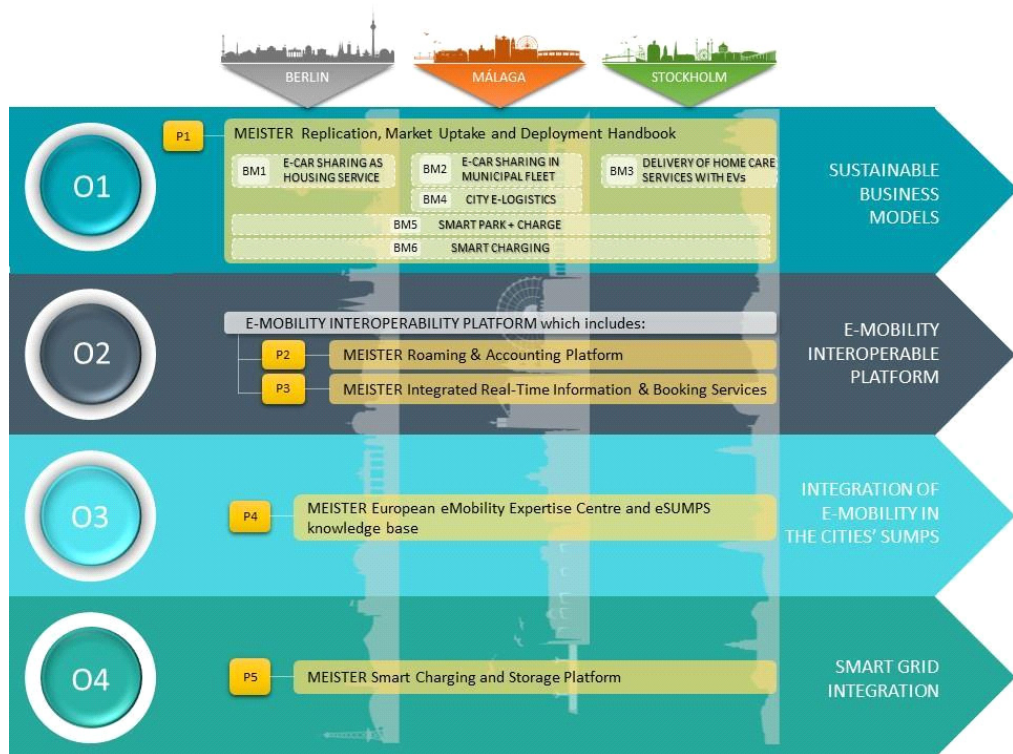
-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전기차 충전기(EVSE,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설치비용을 20%, 운영비용을 40%, 충전비용을 20%가량 절감하고, 약 1,000대의 전기차 신규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더 나아가 연간 최대 199,75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를 기대



[그림] 애플리케이션 예약 화면(좌) 및 시민이 앱을 사용하는 모습(우)



[그림] 스마트 주차 규제봉.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규제봉이 자동으로 젖혀져 주차가 가능



[그림] 마이스터(MEISTER) 프로젝트 계획도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verkehrspolitik/forschungs-und-entwicklungsprojekte/laufende-projekte/umweltfreundliche-mobilitaet-meister-1019945.php>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what-horizon-2020>

<https://www.berlin.de/sen/uvk/presse/pressemitteilungen/2021/pressemitteilung.1087140.php>

<https://meisterproject.eu/project-objectives/>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교통 소외계층 등을 위한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시행

캐나다 에드먼턴시 / 도시교통

에드먼턴시는 2021년 4월 25일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과 함께 일부 대중교통 사각 지역의 이용자를 위한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가장 근접한 버스정류장에서 6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노인 밀집 주거지의 주민들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예약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환승센터까지 무료로 이동

배경

- 2021년 4월 25일 에드먼턴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유사한 지선, 간선, 급행 등의 세 가지 버스 시스템으로 운영
 - 대중교통 시스템을 권역별로 나누고 권역별 환승센터와 경전철역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함
 - 캐나다의 일반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비용은 시간당 약 100달러 수준
-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량 급감
 - 캐나다의 교통정보 및 분석 데이터 전문회사인 트랜짓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중교통의 평균 경유 수요가 예년 대비 83% 감소
 - 전 세계 11개국 106개 도시의 평균 감소율은 76%
 - 일부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율을 보임
 - 중소도시인 에드먼턴과 같은 자가용 의존적인 도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감소함에 따라 자가용 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주요 내용

- 대중교통 이용 빈도를 고려한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행
 -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37개 마을과 16개 권역별 환승센터를 연결
 -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노인 밀집 주거지 주민을 주 고객으로 함
 - 매일 소형 셔틀버스를 운행

○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현황

- 셔틀버스 운영 시간
 - 주중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요양병원 및 노인집합주택(Senior housing)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 제공
- 3가지 유형의 장애인용 셔틀버스 운영
- 휠체어, 보행기 또는 유모차,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52대의 셔틀버스 보유

○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의 장점

-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성
- 정차 없이 가장 가까운 환승센터로 단시간에 도달
- 전문적으로 훈련된 운전자가 운행하는 데 따른 안전성
- 앱을 사용하여 예약할 경우 실시간으로 셔틀버스 운행 경로 추적 가능



[사진] 에드먼턴의 주문형 버스

(출처: <https://www.masstransitmag.com/alt-mobility/shared-mobility/press-release/21218737/city-of-edmonton-edmonton-preps-to-launch-ondemand-transit-option>)

○ 예약 방법 및 유의사항

- 에드먼턴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가능
- 홈페이지(edmonton.ca/OnDemandTransit) 예약 또는 예약센터 전화 예약 가능
- 정해진 승차 시간을 지켜야 하며, 탑승 장소에서 버스가 1분 동안 대기 후 이동
- 몸무게 9kg 이하의 유아와 동반할 경우 유아용 안전 캐리어 필요
- 예약 취소 사유 발생 시 탑승 예정시각 20분 전까지 취소해야 함

유사 서비스의 성공 사례

- 캐나다의 주요 15개 도시에서는 주문형 운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 중
 - 온타리오주 벨빌(Belleville)시는 공단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해 심야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행
 - 토론토에 위치해 있는 교통 분석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팬토니움(Pantonium)과 제휴하여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
 - 2021년 현재 이용률 300% 증가
 - 온타리오주 이니스필(Innisfil)시는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협력하여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
 -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지정된 환승 장소인 도서관, 체육관,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운행
 - 승객은 평균 3달러의 승차요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
 - 그런데 민간업체와의 제휴, 주민들의 긴요하지 않은 이용 증가 등으로 비용이 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서비스 축소 등을 검토 중

<https://www.calgary.ca/pda/pd/home-building-and-renovations/secondary-suites.html>

<https://pantonium.com/>

<https://bayobserver.ca/2021/02/27/toronto-company-using-software-to-make-on-demand-transit-a-reality/>

<https://www.cbc.ca/radio/costofliving/the-long-road-to-economic-recovery-and-the-roads-mass-transit-is-taking-now-and-in-the-future-1.5825218/missing-the-bus-schedule-how-the-pandemic-is-boosting-on-demand-transit-1.5825221>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9/jul/16/the-innisfil-experiment-the-town-that-replaced-public-transit-with-uber>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06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6월 2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